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만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73호 현대불교
2010년 3월 3일(음 1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제 뿌리에서만 제 나무를 푸르게 살게 할 수 있어

푸르게 살고 싶어요

질문: 선법가 중에 푸르게 살라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진정으로 사계절 없는 봄 속에서 내 마음이 푸르름을 잃지 않고 푸르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샘솟듯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살아간다 보면 나는 왜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조상의 덕도 없어서 이 모양 이 꼴밖에 살지 못하는가 하는 절망이 밀려옵니다. 스님,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우리가 종교라는 것도 종교라는 이름 이전에 생활이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생활이 종교니까 그대로 생활 속에서 지혜를 넓히려면, 아주 못생긴 사람든지 얇은 사람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하여간에 애라도 똑바른 말을 하면 귀담아 듣고 그것을 흘리지 말라 하는 거죠. 사람만 스승이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저 나뭇잎들도 봄이 되면 피어났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서 떨어집니다. 그래도 나무는 겨울 내내 하얀 눈과 비를 다 맞고 그 비바람에 조금도 끄떡없이 인내롭게 봄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이 마음을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는 게 있고 기다리는 게 있고 여유가 있어야 빛을 볼 수 있고 화복을 가져올 수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지, 그 인내로움이 없고 불 끈불 끈 그냥 화나는 대로 해 버린다면 그거는 포근한 화복을 가져올 수도 없거나 재물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도 생각이 있거든요. 들어오려고 까딱까딱하다가 말입니다. 그 집이 시끄러우면 '아이! 이 집에 들어가 봤자 이러 쪼기고 저러 쪼기고 그러니까 귀찮다!' 그러곤 딱 데로 가요. 이 만물이 다 그러해서 스승이 아닌 게 없습니다. 나무를 봐도 스승이요, 풀 한 포기들 봐도 스승이요, 물 흘러가는 걸 봐도 스승이요, 집들을 울망쭈랑 짓고 사는 것도 스승이요, 비가 오는 것도 스승이요, 비가 안 오는 것도 스승이요, 모두가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그걸 보고 모두 배우라고 하는 게 팔만대장경 아닙니까? 책에 쓰여 있는 것만 팔만대장경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지금 들고 보고 행하고, 공생(共生)·공용(共用)·공체(供體)·공식화(供食化) 하고 돌아가는 이 자제 모두가 스승이자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망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망상을 칼로 자르듯이 끊는다면 망상이 끊어집니까? 그것을 물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없이 '흘러가는 물을 너희들이 아무리 잘라 봐라, 잘라지나!'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공생

으로서 돌아간다는 그 자체를 알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돌아간다는 걸 알면 망상이라고 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인연이 돼서 내 몸뚱이 속에 있으니, 그것을 불가에선 속명통이라고 합니다. '속명통' 하면 그게 다섯 가지가 한데 합쳐진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인간에게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컴퓨터에 입력이 된 대로 지금 현실에 자주 나오는 것을 망상이라고 한다면, 그 망상을 끊

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오는 모든 것을 재료로 알고 몽땅 몽땅 갖다가 집어넣어 입력을 한다면 그것들을 녹일 수 있습니다.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가 놓고 또 '너만이 낮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거기가 놓는 겁니다.

나무뿌리가 말입니다. 제 나무의 뿌리가 제 나무를 돌지, 탄 나무의 뿌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복으로 만날 탄 뿌리예다가 달라고 빌어도 그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 뿌리예다가 "나, 지금 수분이 적어." 한다면 이 뿌리는 수분을 흡수해서 올

내가 씹어라든 뿌리가 있는데 그 씹이 뿌리를 믿지 어디를 믿습니까? 네? 탄 나무를 믿고 탄 이름을 믿고 탄 행상을 믿는데 에너지가 자기 나무로 가겠습니까? 그건 공력이 하나도 없어요. 제 뿌리에서만 제 나무를 푸르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 뿌리에서만 너그럽고 지혜롭게 이끌어 가는 거고 물리가 터지게도 하고 깨치게도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모든 에너지를, 즉 말하자면 철분 황분 흙의 지분 등 모든 것을 위로 올려보내고, 나무는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해서 또 내려보내고, 인간의 정맥과 동맥이 돌아가듯 이렇게

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근본 뿌리를 믿고 거기에 다 모든 걸 맡겨 놓는다면 언제나 푸르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사 방식에 혼돈이 옵니다

질문: 어느 절에서는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 하면서도 천도제를 올릴 때는 속가에서보다 더 수복하게 재물을 준비해서 재(齋)를 지내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다 먹을 수도 없는 음식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스님의 법문을 듣기로는 영가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내는 스님들의 차원에 따라서 천도가 되고 재주들의 정성을 통해서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고 이게 혼돈이 옵니다.

답변: 혼동할 거 없습니다.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해야만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이 안심이 안되는 그런 근기를 가진 사람 앞에는 잘 차려 드려야죠. 안 그래요? 또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 먹는 밥 한 그릇을 놓고도 천도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아, 사람 근기에 따라서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도 잘못되는 게 없고 저것도 잘못되는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또 이것 보십시오. 사람이 상을 크게 차려 놔습니다. 그러면 여러 분이 뭐뭐 뭐뭐 비싼 걸 사다 놔는지 뭐 뭐 사다 놔는지 그걸 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다 놓은 것은 흔백도 다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제사(祭)를 지내는데 며느리가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거 안되겠거든요. 남편이 돈 십만 원을 주는 걸 가지고 오만 원은 때 놓고 오만 원 가지고 가서 장을 다 바 왔단 말입니다. "여보, 장 봐 왔소? 어머니가 잘 잡수던 것도 사오고?" 그러니까 "에." 그러기에 아들은 그런 줄도 알고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찬 거를 사다가 이렇게 상을 차려 놔어요. 그래도 그 아들은 그것을 의심 안 하고 그냥 지극한 마음으로 했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찬 거를 그만쯤 해 놔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어머니 시아버지도 그 만큼 차려다 놓는 거를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꿈에 "애야, 네가 찬 것만 요렇게 했다 왔으니 지금 너의 할아버지도 모두 계신데 내가 가져갈 것이 없느니라." 아, 그러거든요. 그리고 꿈을 딱 깬어요. 그래서 날더러 와서

2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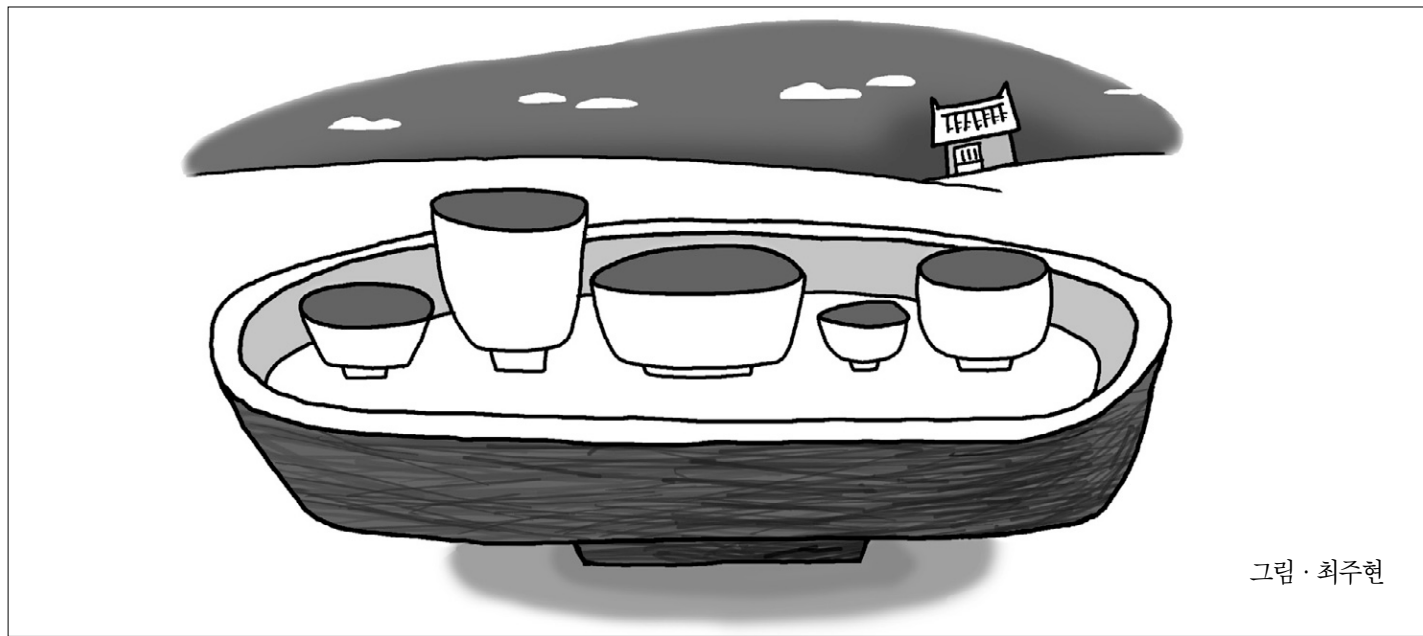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는다가보다는 그냥 그 나오는 데다 퇴입력을 시키면 앞서 입력된 거는 없어지지 않느냐, 이게 하나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없어지는 것도 아닌, 즉 말하자면 일어났다가 꺼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끊으려고 애 쓰고 잠을 몰아내려고 애쓰니, 잠이 몰아내지는 것이며 망상이 끊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물은 나 같이 살라 하며 저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천초목은 초목대로 나같이 살라 하고 저렇게 푸르게 하고 있고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어떠한 애고나 병고, 즉 말하자면 세균성 업보성 영계성 인과성 유전성이 자제가 전부 마음으로 해서 오는 거다 이겁니다. 이처럼 전자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

리지만, 탄 뿌리예다가 "나, 목이 말라." 한다고 그게 목을 축이게 해 줘니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빌지 말라. 상대에게 기도하지 말라. 공색하게 노예가 되지 말라. 지금 노예 노릇을 하면 세세생생에 노예가 된다. 내 뿌리에서 나온 씹이니까 내 뿌리만이 이 씹이 병통이 나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인간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뿌리를 못 보듯이 나무도 흙에 떨어져 자기 뿌리를 못 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뭐가 떨어져 못 보느냐? 무명이 떨어져 못 본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한마을 도리를 공부하면서 체험도 하고 감응이 되고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짐작이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물리가 터지는 거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모두가 나로부터입니다.

해서 자기 나무를 푸르게 살게 하고 깨치게 하고, 문 없는 문을 넘게 하고 빗장 없는 빗장을 쥐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있거든 내가 항상 바깥으로 찾는다면 아무 공력도 없고 이득도 없고, 만일 끈달리다가 이 차안 속에서, 즉 말하자면 어항 속에서 고기가 바깥으로 못 나가듯 그렇게 피안의 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차안의 세계와 피안의 세계가 백지장 하나 사이도 안 되는 것을, 한 줄나도 안 되는 것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관습 때문입니다. 먹어 보지도 못했고 맛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수박이라면 과감히 그냥 동강을 내서 맛을 보고 써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그 씨를 되심어서 고다을 해에 수박은 되냐고 되냐고 해서 영원한 진리의 수박이라는 걸 알게끔 돼야 되는데 말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창업을 위한 전문자격증 교육생 및 지부모집

제 7기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 과 목	교육 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종) · 중양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종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호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월요일 반

교육기간 : 2010년 2월 20일 - 2010년 5월 22일 / 모집기간 : 매월 상시모집 중

중앙 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 교육원

영남본부교육원 055-543-3155	부산해운대지부 051-757-9990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본부교육원 063-254-5500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636-2972	광주교육원 062-672-5432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부모집-

현재 9개 운영 중 아래 9개 지부를 상시 모집합니다.
강원남부 / 강원북부 / 경기남부 / 경기북부 / 충청남부 / 충청북부 / 대전 / 인천 / 수원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선어록의 최고봉 임제록 강좌 및 참선실수 수강생 모집

- ◆ 개강일시 : 3월 22일 오후 2시 (매주 월요일)
- ◆ 대 상 : 스님, 일반인

무료 명상치료법회

- ◆ 대 상 : 각종 질병 및 비만 왜소한 몸 체질개선
- ◆ 일 시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까지

접수처 : **임제선학원 ☎ 02)496-3952~3**
서울 중랑구 망우 3동 120-7